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전란영** · 김희화***

초 록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메타분석을 하였다. 생태학적 접근으로 관련변인을 범주화한 후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 각각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10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56개 변인, 73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각 변인을 체계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적 변인(30개), 미시체계 변인(23개), 외체계 변인(3개)으로 구분되었고 중간체계 및 거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지향성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개인적 변인 중 큰 효과크기의 변인은 없었으나 공감과 배려, 집단 간 불안, 위협인식, 편견, 자아존중감, 자민족중심주의 등이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고 학업 성취 등은 작은 효과크기였다. 미시체계 변인에서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교육은 큰 효과크기였다. 부모의 편견,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위기, 또래관계, 부모의 양육 등은 중간 효과크기였고 교내/급내 이주민 학생 수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작은 효과크기였다. 외체계 변인에서는 다문화 미디어 경험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다문화 미디어 경험과 지역사회인식은 중간 효과크기였고 지역사회 내 이주민 수는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 개입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아동, 청소년, 다문화 태도, 메타분석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논문으로 2019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생활환경연구소 연수연구원,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교신저자, hwakim@pusan.ac.kr

I. 서 론

최근 10여 년간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로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했다(UN, 2017). 한국 역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4%)을 넘어서면서(법무부, 2018)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수의 증가나 인구 구성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김진희, 2014). 인구학적 다양성이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관한 자연스러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기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기존 사회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박은아, 이은주, 2018; 정이화, 박선미, 2014).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과 공존하려는 개인의 태도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다문화 태도(multicultural attitude)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¹⁾

다문화 태도란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김경근, 이기혜, 2016)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지하며(Stupar, van de Vijver, Te Lindert & Fontaine, 2014) 민족적·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심을 나타내는 태도(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의 차이에 성숙하게 대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이 다문화 사회를 직접 경험하는 세대이자 앞으로 더 복잡한 다문화 사회를 겪을 세대라는 점(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6)은 이들의 다문화 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성이 발달하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van Zalk & Kerr, 2014) 이

1) 국내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 태도 등의 용어가 혼용된다. 김경근과 이기혜(2016)는 주로 한국에서 연구되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용어보다 '다문화적 태도'를 사용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다름에 대한 수용이 곧 다문화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민족적·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것에 더해 존중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타내야 할 태도이므로 이를 '다문화 태도(multicultural attitude)'라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강혜정, 임은미, 2012; Berry, 2006; Munroe & Pearson, 2006; van Geel & Vedder, 2011)를 기초로 '다문화 태도'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기에 형성된 태도가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Nesdale & Flesser, 2001).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다문화 사회의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추후 다문화 사회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이들의 다문화 태도에 관심을 두고 이를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고찰해 어떤 요인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더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때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공감(이정아, 이윤정, 2016; Stasiuk & Bilewicz, 2013), 자아존중감(Benbow & Rutland, 2017), 생활만족도(Inguglia & Mussoa, 2015) 등은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공격성(Piumatti & Mosso, 2017), 위협인식(Ljujic, Vedder, Dekker & Geel, 2013), 편견(심미영, 이은유, 2017) 등은 다문화 태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므로(한윤선, 김부경, 전수아, 2014) 개인 내적 요인만으로 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Bronfenbrenner(1994)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에 배경을 둔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은 환경의 일부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을 개인적 특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Bronfenbrenner, 1994).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이해하는 적절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역시 개인의 사회인지적 특성(Levy & Dweck, 1999)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경험, 거주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특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McKown, 2005). 실제로 부모의 다문화 태도(Jugert, Eckstein, Beelmann & Noack, 2016), 또래관계(van Zalk, Kerr, van Zalk & Stattin, 2013), 갈등적 학교 분위기(Dejaeghere, Hooghe & Claes, 2012), 미디어의 이민자에 대한 묘사(Tukachinsky, Mastro & Yarchi, 2015),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수(한윤선 등, 2014), 국가의 이민자 정책(Barber, Fennelly & Torney-Purta, 2013) 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생태학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여러 환경체계의 특정 변인의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더 관련이 있는지 상대적 비교를 통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일한 변인에 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연구결과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얻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일례로 많은 연구에서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민족정체성은 혈통이나 민족을 기초로 국가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백승대, 안태준, 2013). 민족정체성과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다문화 태도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경근, 이기혜, 2016; Vezzali, Capozza, Stathi & Giovannini, 2012)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다문화 태도가 향상된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Schwarzenthal, Juang, Schachner, van de Vijver & Handrick, 2017).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다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설은정, 정옥분, 2012)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유안나, 김순규, 이주재, 2018)가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 일관된 연구결과는 각 변인의 효과에 관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연구결과에 관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해 비교적 많은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일부 변인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일관된 개입방안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을 생태학적 접근을 적용해 메타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같은 주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수학적 방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분석하는 종합 분석방법이다(김계수, 2015; 황성동, 2014). 메타분석은 누적된 연구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양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선행연구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고 연구주제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메타분석의 장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메타분석으로 확인하여 통합된 이해를 이끌어내고 각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연구되었다.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과 환경의 관련성에 관한 복잡한 쟁점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조망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으므로(윤종희, 2001) 지금까지 보고된 다양한 연구를 포괄하여 분석하는 사후적 성격(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의 메타분석에 적절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태도를 생태학적 접근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McKown, 2005)는 본 연구의 분석적 관점을 뒷받침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개인적 특성과 경험에 해당하는 '개인적 변인', 가정, 또래, 학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해당하는 '미시체계 변인', 그리고 지역사회, 미디어처럼 더 넓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하는 '외체계 변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각 체계 내 개별변인이 다문화 태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 효과크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국내외에서 연구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범주화하고, 메타분석으로 체계 내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여 다문화 태도와 관련이 높은 변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 먼저 개입해야 할 변인이 무엇인지 변별하여 개입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증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문화 태도에 관한 발전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 내 개별변인 각각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에 관한 양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를 선정하고자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의 연령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인 양적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7세가 되면 평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며 인종 차별이 부적절함을 알게 되므로 외현적인 다문화 태도의 측정이 가능해진다(Hailey & Olson, 2013). 만 18세 이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대학 입학, 군 복무, 취업 등 삶의 전환기를 겪게 되므로(Raabe & Beelmann, 2011) 연령의 상한선은 만 18세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Berk, 2013)를 기준으로 만 6-11세를 아동, 만 12-18세를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연구의 경우 연령보다는 학년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초등학교생은 아동으로, 중·고등학교생은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문헌고찰 및 질적연구,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연구, 척도개발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양적연구의 경우에도 효과크기를 계수할 수 있는 통계치(예: r 값, d 값 등)가 제시된 연구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주제로 2005년 이후 출판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 세계 연간 이주민 수는 1990년에서 2005년까지 2500만 명이었으나 2005년에서 2017년에는 2배 이상인 5600만 명이 이주한 것으로 보고된다(UN, 2017). 또한 한국에서는 2005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정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06년 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후 각종 정책이 도입되었으며(윤상우, 김상돈, 2010)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하였다. 이상을 고려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증가한 2005년 이후 국내외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1) 핵심용어 선정

Cooper(2017)는 분야별로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의 핵심용어(key word)만을 사용하기보다 관련된 용어들을 폭넓게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연구를 누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도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빈번하게 사용되는 핵심용어(key word)와 복합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의 핵심용어를 사용해 검색하였다.

- 한국 연구: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지향성,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 태도
- 한국 외 연구: multicultural attitude, interethnic attitude, intercultural attitude, attitude towards multiculturalism, ethnic & intergroup attitude, tolerance towards immigrants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내용을 연구자와 아동학 박사 1명이 검토하였고 아동학 전공 교수 1명이 이를 최종적으로 검수하였다. 이상으로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 태도와 일치하는 개념을 다룬 연구를 수집하였다.

2) 사용 데이터 베이스 및 검색전략

해당 주제의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단행본 자료를 검색하였다²⁾. 한국 문헌은 한국학술정보원(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데이터베이스(KISS), 국회전자도서관(NADL), DBpia를 사용하였다. 한국 외 문헌은 Academic Search Complete(ASC), PsycARTICLES, ProQuest Central, Science Direct, Wiley Online Library, PDU 해외학위논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베이스로 자료를 수집한 후 Google scholar 사이트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연구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태도 관련 메타분석 논문의 참고문헌을 사용하여 논문을 직접 검색하고 연구를 추가하였다.

2) 메타분석에서는 다양한 연구물을 포괄해야 하나 동시에 연구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Cooper, 2017).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연구를 선정하기 위해 학술지 출판 논문, 박사학위논문, 단행본 자료로 연구물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언어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에서 2018년 10월이고 영어와 한국어로 출판된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분석대상 변인 및 기타

최소 2편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동일 저자가 중복하여 발표한 논문(예: 학위논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더 자세한 통계치가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여러 연구가 보고된 경우 연구변인의 수가 가장 많거나 표본 수가 가장 많은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는 같은 자료를 사용한 여러 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하면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Shin, 2009).

5) 선정과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학술 데이터 베이스(DB) 1차 검색결과 4,145편의 연구를 확인하였다. 이 중 주제어와 제목, 초록을 검토하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연구 476편을 추출하였다. 이 후 Google Scholar를 이용하여 2차 검색을 실시하여 40편의 연구를 추가하였고, 기존 메타분석 연구의 참고문헌을 사용해 수기검색으로 6편의 연구를 확보하였다. 2차 검색결과 46편의 연구가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확인된 연구는 총 522편이었다. 최종 확인된 연구를 검토한 후 상관계수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는 원저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522편의 연구 중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 195편, 효과크기의 통계적 변환이 어려운 질적연구와 문헌고찰 35편은 제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21편, 척도 개발연구 9편,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없는 실험연구 52편, 상관계수가 없거나 변환이 불가능한 조사연구 92편, 게재 철회된 연구 1편, 메타분석 연구 2편 역시 제외하였다. 같은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10편의 연구를 제외하여 총 417편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12개 국가에서 이루어진 105편의 연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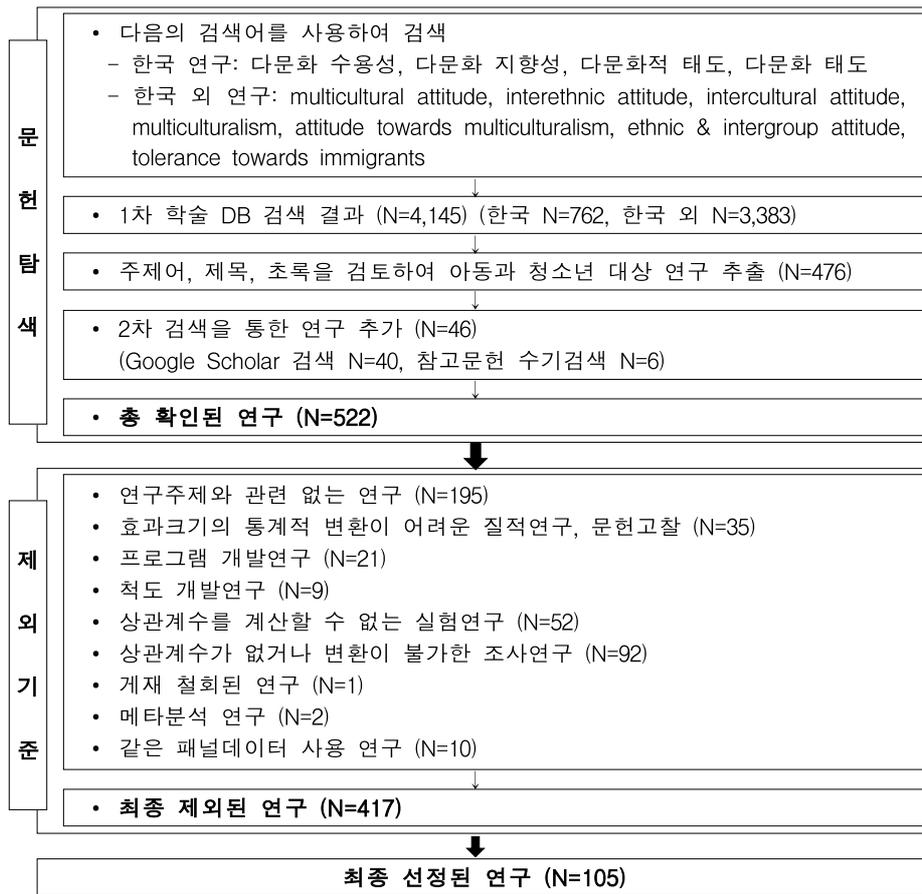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연구의 선정과정

3. 자료처리

1) 자료의 코딩

본 연구에서는 상기 과정에 따라 수집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코딩하였다. 먼저 일련번호, 저자명, 발행연도, 표본의 연령, 표본 수, 표집국가, 측정연도, 관련변인 명,

3)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한 논문의 목록은 전란영(2019)의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메타분석' 논문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통계치, 측정도구 등을 양식에 따라 코딩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 변인은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외체계 변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교수 1명이 이를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 결과를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2) 신뢰도

자료 코딩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아동학 석사 1명이 개별적으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 결과의 평정자 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ohen의 Kappa 계수를 산출한 결과 그 값은 .94였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 간 일치도는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치되지 않는 코딩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하여 코딩 내용을 조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Microsoft Excel 2010으로 자료를 코딩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으로 연구특성(출판형태 등)을 빈도분석 하였다. CMA 3(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 프로그램으로 출판편향 검증, 효과크기 분석,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효과크기의 산출

효과크기(effect size)는 메타분석에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량적(quantitative) 지수로 각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관계의 크기 혹은 강도를 의미한다. 효과크기를 구하는 것은 메타분석한 결과를 쉽게 해석하고 비교하며 통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값으로 요약하는 것이다(강현, 2015).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효과크기를 알아보려 하므로 연속형 변인 간 관계를 측정하는 상관계수에 기초한 효과크기 r 값을 사용하였다.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각 연구의 효과크기를 계산하고 이 효과크기를 종합한다. 각 연구의 효과크기는

개별 연구에서 보고된 r 값과 표본크기로 계산된다(Borenstei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CMA 3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계산하고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만약 r 값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변환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통계치(d 값, t 값, F 값)가 제시된 경우 r 값으로 변환한 후 분석하였다. 상관계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이나 이를 효과크기로 사용할 경우 분산의 분포가 상관계수 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효과크기 분산이 작아져 편포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황성동, 2014).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해 메타분석 시 정규분포 하는 분산 값을 갖도록 Fisher's Z 로 표준화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r 값을 Fisher's Z 로 변환한 후 이를 병합하여 평균값(Z_r)을 구한 후, 다시 원래 r 값으로 변환하여 최종 효과크기의 통합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상관계수를 Fisher's Z 로 전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0.5 \times \ln \left(\frac{1+r}{1-r} \right).$$

다음으로 Z 의 분산과 표준오차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V_z = \frac{1}{n-3} \quad (n: \text{연구의 표본 수}), \quad SE_z = \sqrt{V_z}.$$

이후 최종 보고를 위해 원래의 상관계수(r)값으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Borenstein et al., 2009).

$$r = \frac{e^{2z} - 1}{e^{2z} + 1}.$$

2) 효과크기의 해석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기준에 의하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30은 중간 효과크기, .50 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된다(Cohen, 1988). 효과크기의 유의확률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에서 0의 포함 여부로 확인하였는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유의확률 값이 .05보다 작음을 의미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3) 분석모형 선택 및 이질성 검증

메타분석의 분석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모형은 모든 연구의 모집단은 같다고 가정하고 같은 모집단의 효과를 추정한다. 반면 무선효과모형은 연구별로 연구대상의 특성이 다르므로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질적인 모집단의 평균 효과크기를 추정한다(Borenstein et al., 2009). 메타분석에서는 모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하는지,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과크기 계산 모형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연구가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대상에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하나의 실제 효과크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연구 간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해 메타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각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크기의 분포 정도와 연구 간 효과크기가 일관되지 않은 정도인 효과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황성동, 2014)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2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I^2 통계치는 총 분산에 대한 실제비율을 의미하며 I^2 통계치가 75% 이상이고 동질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황성동, 2014).

4)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

하위집단분석으로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종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알아보고 체계 내 변인의 효과크기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위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5) 출판편향 검증

메타분석에서는 분석대상 연구의 결과가 실제 연구된 모든 연구의 결과를 대표하지 못하는 오류인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더 많이 출판되고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는 출판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orenstein et al., 2009). 따라서 메타분석 결과가 기존 연구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Funnel plot의 대칭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고 Egger의 회귀분석(Egger's regression test)으로 Funnel plot의 비대칭성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분석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 연구의 105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출판유형은 학술지 96편(91.43%), 박사학위논문 6편(5.71%), 단행본의 장(chapter)이 3편(2.86%)이었다. 출판 국가는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가 48편(45.71%), 한국 외 국가에서 발표된 연구가 57편(54.29%)이었다.

한 연구에 2개 이상의 연구나 국가, 연구대상이 포함된 경우 개별 연구로 간주하여 빈도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표본 수는 957명이었고 표본 수가 100명 이하인 연구가 4편(3.74%), 101명에서 500명 규모의 연구가 51편(47.66%)으로 가장 많았다. 501-1000명인 연구 26편(24.30%), 1001-2000명인 연구는 12편(11.21%), 2,001명 이상의 연구는 14편(13.09%)이었다. 횡단연구는 94편(89.52%), 종단연구는 11편(10.48%)이었다. 다음으로 자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1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87편(82.86%),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18편(17.14%)이었다. 2차 자료 연구 중 국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은 11편이었다.

출판연도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11편(10.48%), 2010년에서 2014년까지 46편(43.81%),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8편(45.71%)으로 최근 10여 년간 수행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집 국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표집된 연구가 48편(44.86%)으로 가장 많았고, 네덜란드에서 표집된 연구가 14편(13.08%), 독일에서 표집된 연구가 10편(9.35%), 미국에서 표집된 연구가 9편(8.41%), 핀란드에서 표집된 연구가 6편(5.61%), 영국에서 표집된 연구가 5편(4.67%), 스웨덴에서 표집된 연구가 5편(4.67%), 세르비아에서 표집된 연구가 2편(1.87%),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동

시에 표집된 연구와 스페인, 아일랜드, 폴란드에서 표집된 연구가 각각 1편(.93%)씩 총 4편이었다. 분석대상 연구의 표본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본이 아동(만 6~11세)인 연구가 28편(27.36%), 청소년(만 12~18세)인 연구가 68편(63.21%)이었고,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연구한 경우가 10편(9.43%)이었다.

1) 출판편향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메타분석 한 결과에 출판편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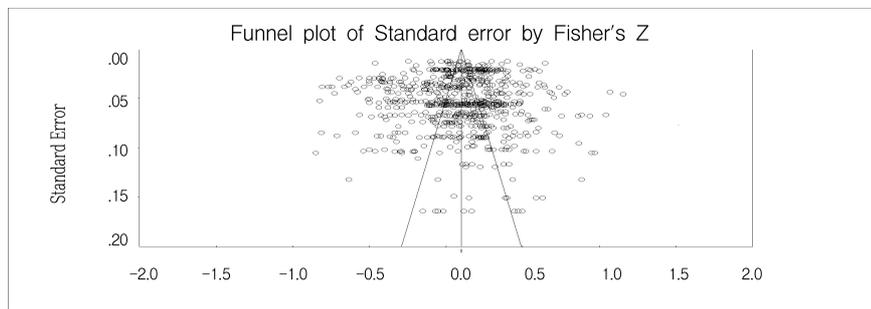


그림 2.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결과의 출판편향

그림 2에 제시한 Funnel plot의 X축은 효과크기, Y축은 표준오차이다. Funnel plot은 출판편향이 없으면 좌우 대칭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Funnel plot을 살펴보면 연구의 분포는 대칭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칭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Egger'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가설은 회귀식의 초깃값(intercept)은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출판편향이 있다는 것이다(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1997). 본 연구에서 회귀식의 초깃값(intercept)은 -.198이었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703$)⁴⁾. 따라서 본 연구의 출판편향의 가능성에 관한 영가설을 채택할 수 없으므로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이하 본문 및 표에서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기하였음.

2) 자료의 종류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105편의 연구에 18편의 2차 자료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의 종류에 따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차 자료의 효과크기는 .090이었고, 2차 자료의 효과크기는 .123이었다. 통계적으로 자료의 종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_{between} = 3.228, n.s.$).

2.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1)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

105편의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총 56개 변인, 73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각 변인을 체계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적 변인(30개), 미시체계 변인(23개), 외체계 변인(3개)으로 구분되었고 중간체계 및 거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정적 효과크기 변인은 관련변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을 높이는 변인을, 부적 효과크기 변인은 관련변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태도 수준을 낮추는 변인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 시 효과크기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효과크기를 비교하였고 Cohen(1988)의 효과크기 기준에 따라 효과크기를 해석하였으며⁵⁾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 개인적 변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적 변인에 속하는 변인의 효과크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5) 본 연구에서는 Cohen(1988)의 해석기준을 기초로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10에서 .50사이의 효과크기를 중간 효과크기, .50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여 제시하였음.

한 차이가 있었다($Q_{between} = 1125.969, p < .001$).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없었다.

표 1

개인적 변인 효과크기 분석

변인	<i>k</i>	<i>ESr</i>	95% <i>CI</i>	I^2	<i>df</i>	$Q_{between}$
사회지배 지향성	3	-.497	-.548 ~ -.444	.000	2	1125.969***
공감과 배려	12	.410	.329 ~ .489	85.252	11	
집단 간 불안	25	-.393	-.471 ~ -.310	92.878	24	
위협인식	19	-.367	-.456 ~ -.270	96.616	18	
편견	27	-.340	-.405 ~ -.270	96.722	27	
자아탄력성	3	.298	.243 ~ .351	82.082	2	
시민의식	17	.297	.217 ~ .374	98.083	16	
내재적 가치	9	.276	.172 ~ .374	94.138	8	
자아정체성	2	.271	.108 ~ .420	97.706	1	
생활만족도	12	.249	.204 ~ .292	80.719	11	
외집단과 유사성 인식	3	.249	.175 ~ .319	17.961	2	
자아존중감	24	.231	.193 ~ .269	83.593	23	
공격성	4	-.228	-.375 ~ -.069	84.623	3	
자민족중심주의	12	-.208	-.298 ~ -.116	94.850	11	
분리배제주의	9	-.207	-.274 ~ -.138	73.801	8	
이중문화 효능감	20	.205	.115 ~ .291	92.917	19	
대인관계능력	5	.205	.116 ~ .291	67.879	4	
해외여행 경험	6	.196	.004 ~ .375	97.209	5	
다수문화 동화주의	12	-.180	-.360 ~ .013	98.289	11	
다수문화 정체성 ^a	7	.176	.041 ~ .306	77.206	6	
사회적 정체성	5	.155	.114 ~ .196	.000	4	
높은 학업성취	13	.083	.024 ~ .141	87.151	12	
체험활동	4	.079	.023 ~ .135	85.838	3	

변인	k	ESr	95% CI	I ²	df	Q _{between}
좋은 건강상태	3	.077	.036 ~ .117	62.068	2	
거주기간 ^a	2	.070	-.042 ~ .180	.000	1	
성별	37	.064	.018 ~ .109	90.663	36	
심리적 문제	7	-.060	-.093 ~ -.026	51.699	6	
시민정체성	7	.041	-.006 ~ .088	61.698	6	
민족정체성	77	.032	-.023 ~ .087	96.181	76	
연령	31	.007	-.022 ~ .037	69.996	30	

^a 이주민 가정 아동과 청소년만 응답한 변인 / ****p*<.001

.100에서 .500 사이의 중간 효과크기의 변인을 효과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지배 지향성($ES_s = -.497$)과 공감과 배려($ES_s = .410$)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사회지배지향성이란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여 지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황세영, 강정석, 강혜자, 2017). 이러한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감과 배려는 정적 효과크기로 공감과 배려를 잘 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집단 간 불안($ES_s = -.393$), 위협인식($ES_s = -.367$), 편견($ES_s = -.340$) 순이었다. 이는 자신과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 불안을 느끼거나 이주민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며 편견을 가질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계속 효과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자아탄력성($ES_s = .298$), 시민의식($ES_s = .297$), 내재적 가치($ES_s = .276$), 자아정체성($ES_s = .271$), 생활만족도($ES_s = .249$), 외집단과 유사성 인식($ES_s = .249$), 자아존중감($ES_s = .231$), 공격성($ES_s = -.228$), 자민족중심주의($ES_s = -.208$), 분리배제주의($ES_s = -.207$), 이중문화 효능감($ES_s = .205$), 대인관계능력($ES_s = .205$), 해외여행 경험($ES_s = .196$), 다수문화 동화주의($ES_s = -.180$), 이주민 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다수문화 정체성($ES_s = .176$), 사회적 정체성($ES_s = .155$) 순이었다. 이 중 다수문화 동화주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0 이하의 작은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을 살펴보면 높은 학업성취($ES_s = .083$), 체험활동($ES_s = .079$), 좋은 건강상태($ES_s = .077$), 거주기간($ES_s = .070$), 성별($ES_s = .064$), 우울 등

심리적 문제($ESr = -.060$)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면 다문화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이주 후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체성($ESr = .041$), 민족정체성($ESr = .032$), 연령($ESr = .007$)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2) 미시체계 변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미시체계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시체계 변인에 속하는 변인의 효과크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etween} = 924.723, p < .001$).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ESr = .591$), 다문화 교육($ESr = .533$)이었다.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중요 타인인 부모와 또래의 다문화 태도가 모두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의 횟수가 많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시체계 변인 효과크기 분석

변인	k	ESr	95% CI	I ²	df	Q _{between}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	5	.591	.418 ~ .722	91.342	4	924.724***
다문화 교육	5	.533	.249 ~ .732	98.814	4	
접촉의 질	14	.430	.340 ~ .513	86.158	13	
또래의 다문화 태도	13	.411	.277 ~ .529	95.232	12	
부모의 편견	4	-.331	-.365 ~ -.295	10.670	3	
부모의 다문화 태도	15	.301	.196 ~ .399	97.994	14	
긍정적 교사관계	7	.300	.249 ~ .348	83.974	6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위기	23	.282	.230 ~ .333	95.046	22	
학교생활적응	10	.248	.197 ~ .297	88.299	9	

변인	<i>k</i>	<i>ESr</i>	95% <i>CI</i>	<i>I</i> ²	<i>df</i>	<i>Q</i> _{between}
접촉의 양	42	.233	.185 ~ .280	91.717	41	
긍정적 또래관계	19	.202	.139 ~ .264	96.557	18	
민족 간 우정	31	.201	.116 ~ .283	97.603	28	
부정적 접촉	3	-.198	-.432 ~ .060	96.474	2	
부모의 긍정적 양육	15	.195	.154 ~ .234	76.431	14	
확장된 접촉	8	.177	.061 ~ .289	89.212	7	
교사의 다문화 태도	4	.175	-.073 ~ .402	96.403	3	
부모의 부정적 양육	13	-.148	.200 ~ .096	87.741	12	
긍정적 가족관계	3	.127	.016 ~ .235	75.609	2	
교내/급내 이주민 학생 수	16	.106	.041 ~ .170	94.534	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28	.050	.020 ~ .080	91.384	27	
학교 계열(기준=인문)	6	.026	-.016 ~ .068	.617	5	
가족구조	5	.010	-.030 ~ .049	78.234	4	
같은 민족 친구 선호	5	.006	-.070 ~ .081	17.424	4	

****p*<.001

.100에서 .500 사이의 중간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접촉의 질(*ESr* = .430), 또래의 다문화 태도(*ESr* = .411) 순이었으며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접촉의 질의 경우 자신과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긍정적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높아졌다. 또래의 다문화 태도 수준만을 측정한 경우에도 또래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편견(*ESr* = -.331), 부모의 다문화 태도(*ESr* = .301), 긍정적 교사관계(*ESr* = .300),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위기(*ESr* = .282), 학교생활적응(*ESr* = .248), 접촉의 양(*ESr* = .233), 긍정적 또래관계(*ESr* = .202), 민족 간 우정(*ESr* = .201), 부정적 접촉(*ESr* = -.198), 부모의 긍정적 양육(*ESr* = .195), 친구의 친구가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친구임을 아는 간접 접촉을 의미하는 확장된 접촉(*ESr* = .177), 교사의 다문화 태도(*ESr* = .175), 부모의 부정적 양육(*ESr* = -.148), 긍정적 가족관계(*ESr* = .127), 교내와 급내의 이주민 학생 수(*ESr* = .106) 순이었다. 이 중 부

정적 접촉, 교사의 다문화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0 이하의 작은 효과크기의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ES\zeta = .050$), 인문계열과 직업계열의 학교 계열($ES\zeta = .026$), 가족구조($ES\zeta = .010$), 같은 민족 친구 선호($ES\zeta = .006$) 순이었고, 이 중 학교 계열, 가족구조, 같은 민족 친구 선호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외체계 변인

이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외체계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외체계 변인 효과크기 분석

변인	<i>k</i>	<i>ESζ</i>	95% <i>CI</i>	<i>I</i> ²	<i>df</i>	<i>Q</i> _{between}
다문화 미디어 경험	11	.240	-.113 ~ .360	93.654	10	
지역사회인식	7	.198	-.105 ~ -.288	97.194	6	21.558***
지역사회 내 이주민 수	3	.022	-.007 ~ -.051	.000	2	

*** $p < .001$

표 3과 같이 외체계 변인에 속하는 변인의 효과크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_{between} = 21.558, p < .001$).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다문화 미디어 경험($ES\zeta = .240$)과 지역사회인식($ES\zeta = .198$)은 .100에서 .500 사이의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긍정적인 미디어 자료를 많이 접할수록 이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수($ES\zeta = .022$)는 작은 효과크기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연구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범주화하고 메타분석으로 체계 내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후 다문화 태도 향상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105편의 연구를 메타분석 하였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생태학적 접근으로 분류하였을 때 대부분의 변인이 개인적 변인과 미시체계 변인에 집중되어 아직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민자의 증가,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 등 거시적 사회 환경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으나(Tseng & Yoshikawa, 2008) 메타분석 결과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 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지향성, 공감과 배려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에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할 수 있고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용 수준은 낮아지고(Pratto et al., 1994) 차별적인 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Duriez & Soenens, 2009). 이러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보면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을수록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큰 부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감과 배려를 잘하면 민족적·문화적 배경에 따른 가치관과 신념,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Vanman, 2016) 공감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편견 중재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결과 공감 훈련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선행연구(Beelmann & Heinemann, 2014)와 연결해 보면 공감과 배려는 편견을 감소하고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 먼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생각과 차별적 태도의 위험성을 강조하여야 하고 공감과 배려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 지향성, 공감과 배려 다음으로 집단 간 불안, 위협인식, 편견의 효과크기가 컸는데 이는 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보다 더 큰 효과크기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적응이나 대인관계능력만으로 다문화 태도가 향상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문화 태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기회가 늘어나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을 제한된 자원의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며(백승대, 안태준, 2013) 여러 민족과 문화에 관한 편견도 강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단 간 불안, 위협인식, 편견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변인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혐오와 차별 등 부정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Jasinskaja-Lahti, Liebkind & Perhoniemi, 2006). 따라서 이에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변인 중 민족정체성을 메타분석한 결과 효과크기는 .100 이하로 작게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다른 변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효과크기가 크지 않아 기존 연구에서 강조된 민족정체성으로 다문화 태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면 자민족중심주의는 중간 크기의 부정 효과를 보였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동·청소년기에 특정 민족의 일원으로 자신을 범주화하고 소속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족중심주의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위협요인임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는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폭넓은 관점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다문화 태도 향상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시체계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가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위기는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관련지어 보면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집단에서 공유되는 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또래 등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의 태도를 관찰하고 이를 단서로 활용해 사회적

으로 적절한 태도를 형성한다(Nesdale, 2004). 또한 동조성이 높은 시기이므로(권기수, 김숙령, 2010) 자신의 태도를 주변의 태도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와 또래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모두 높으면 다문화 태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어 다문화 태도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 또래관계보다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가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점은 부모와 또래의 다문화 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설명하는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임을 강조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학교에서 다문화 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미시체계 변인 중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이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로 나타난 점은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이 요구됨을 제안해준다. 다문화 태도는 선천적인 특성이기보다 사회적 변화로 요구되는 태도이므로 의도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중 한국 연구에서만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태도의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환경을 유지해 왔기에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므로(임지영, 그레이스 정, 2012) 다문화 교육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의 효과크기와 앞서 언급한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지향성과 편견 등의 효과크기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최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더해 인권교육과 반편견 교육이 다문화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된다(박영준, 2016). 사회지배지향성이나 편견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수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으로 사회구성원의 존엄성과 평등, 인권의 중요성, 편견의 위험성을 인식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갖게 되면 사회지배지향성과 편견 등을 극복하고 다문화 태도가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의도적인 다문화 교육이 한국 아동과 청소년에게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문화 교육내용 선정 시 다문화 태도를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변인에 주의를 기울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미시체계 변인 중 다문화 교육 다음으로 접촉의 질의 효과크기가 컸다. 이는 접촉의 질이 높을수록, 즉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의 질

이 편견을 감소시켰다는 메타분석 결과(Pettigrew & Tropp, 2006)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접촉의 양보다는 질이 다문화 태도 향상의 중요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최근 한국의 경우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의 양적 측면만으로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질 높은 상호작용이 다문화 태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접촉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접촉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체계 변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미디어 경험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 관한 긍정적인 미디어 내용을 많이 경험할수록 다문화 태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체계 변인 중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수보다 다문화 미디어 경험의 효과크기가 큰 점은 이민자의 양적 증가보다 미디어가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는 다문화 사회의 주요 담론을 생산하는 핵심주체(김태영, 윤태진, 2016)이자 외국인, 이주민 등을 접하는 손쉬운 수단이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문화 태도와 관련해 미디어의 영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디어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다루는 사회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하여 이를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범주화하고 각 체계 내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각 체계 일부 변인의 효과만을 보고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분석으로 관련된 변인 각각의 효과크기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입 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실증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점을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사회지배지향성, 집단 간 불안, 접촉의 질, 또래의 다문화 태도, 부모의 편견이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분석대상 한국 연구 중 이러한 변인과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없었다. 이상의 변인

이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후 연구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메타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연구의 수가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일부 변인은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누적될 때 더욱 타당하게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거주 국가, 측정도구 등에 따라 다문화 태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2개국의 연구를 종합하였으나 국가별로 이민자나 외국인의 비율, 경제적 상황, 다문화 사회 관련 정책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추후 고려한 메타분석이 시도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정체성은 거주 국가나 연령, 다수집단(majority)인지 소수집단(minority)인지에 따라 그 의미와 다문화 태도에 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 민족정체성과 다문화 태도의 관련성에 관한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어 및 한국어로 출판된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여러 언어로 출판된 연구결과를 포함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로 출판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 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풍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 (2015). 메타분석에서 통계학적 고려사항들. *Hanyang Medical Reviews*, 35, 23-32.
doi:10.7599/hmr.2015.35.1.23
- 강혜정, 임은미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35-57. doi:10.15753/aje.2012.13.4.002
- 권기수, 김숙령 (2010). 청소년 우정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동교육*, 19(1), 149-162.
- 김경근, 이기혜 (2016).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적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4), 311-335.
- 김계수 (2015). **빅데이터 분석과 메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진희 (2014).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7(1), 101-129.
- 김태영, 윤태진 (2016).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속의 다문화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77, 255-288.
- 박영준 (2016). 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21, 297-322.
doi:10.15400/mccs.2016.04.21.297
- 박은아, 이은주 (2018). 한국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2), 131-138.
- 백승대, 안태준 (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21(2), 1-24.
- 법무부 (2018).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월보. 2018년 3월호.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60&fn=1546651723133101>에서 2019년 2월 10일 추출
- 설은정, 정옥분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91-114.
- 심미영, 이은유 (2017).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자이존증감 및 다문화고정관념과 다문화수용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인문사회* 21, 8(6), 547-559. doi:10.22143/hss21.8.6.37
- 유안나, 김순규, 이주재 (2018).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

- 요인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221-228.
- 윤상우, 김상돈 (2010). 사회병리적 Agenda: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doi:10.15820/khjss.2010.36.1.005
- 윤종희 (2001). 가정복지의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9(8), 93-105.
-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6).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3(3), 1-30.
- 이정아, 이윤정 (2016).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 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3-91.
- 임지영, 그레이스 정 (2012).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부모의 영향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6), 1-11. doi:10.6115/khea.2012.50.6.001
- 정이화, 박선미 (2014).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접촉유형이 중학생의 외집단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불안감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1), 185-207. doi:10.35557/trce.46.1.201403.007
- 한운선, 김부경, 전수아 (2014).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 다문화 밀집지역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97-125.
- 황성동 (2014). **(알기 쉬운)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황세영, 강정석, 강혜자 (2017).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41(3), 181-206. doi:10.33071/ssrich.41.3.201712.181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arber, C., Fennelly, K., & Torney-Purta, J. (2013). Nationalism and support for immigrants' rights among adolescents in 25 countri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7(2), 60-75. doi:10.1080/10888691.2013.774870
- Beelmann, A., & Heinemann, K. S. (2014). Preventing prejudice and improving intergroup attitudes: A meta-analysis of child and adolesc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0-24. doi:10.1016/j.appdev.2013.11.002

- Benbow, A. E., & Rutland, A. (2017). Competence matters! Understanding biculturalism in ethnically diverse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7*(5), 366-373. doi:10.1002/casp.2312
- Berk, L. E. (2013). *Child Development* (9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Berry, J. W. (2006). Mutual attitudes among immigrants and ethnocultural group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719-734. doi:10.1016/j.ijintrel.2006.06.004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 Bruegelmans, S. M., & van De Vijver, F. J. (2004). Antecedents and components of majority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the Netherlands. *Applied Psychology, 53*(3), 400-422. doi:10.1111/j.1464-0597.2004.00177.x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3*(2), 37-4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oper, H. M. (2017).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A step-by-step approach* (5th ed.). CA: SAGE Publication.
- Dejaeghere, Y., Hooghe, M., & Claes, E. (2012). Do ethnically diverse schools reduce ethnocentrism? A two-year panel study among majority group late adolescents in Belgi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1), 108-117. doi:10.1016/j.ijintrel.2011.02.010
- Duriez, B., & Soenens, B. (200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acism: The role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5), 906-909. doi:10.1016/j.jrp.2009.05.014
-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315*(7109), 629-634. doi:10.1136/bmj.315.7109.629

- Hailey, S. E., & Olson, K. R. (2013). A social psychologist's guide to the development of racial attitude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7(7), 457-469. doi:10.1111/spc3.12038
- Inguglia, C., & Musso, P. (2015). Intercultural profiles and adaptation among immigrant and autochthonous adolescent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1(1), 79-99. doi:10.5964/ejop.v11i1.872
- Jasinskaja-Lahti, I., Liebkind, K., & Perhoniemi, R. (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ell-being: A victim study of different immigrant group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6(4), 267-284. doi:10.1002/casp.865
- Jugert, P., Eckstein, K., Beelmann, A., & Noack, P. (2016). Parent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s ethnic intergroup attitudes: A longitudinal analysis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2), 213-230. doi:10.1080/17405629.2015.1084923
- Levy, S. R., & Dweck, C. S. (1999). The impact of children's static versus dynamic conceptions of people on stereotype formation. *Child Development*, 70(5), 1163-1180. doi:10.1111/1467-8624.00085
- Ljujic, V., Vedder, P., Dekker, H., & Geel, M. (2013). Romaphobia among Serbian and Dutch adolescents: The role of perceived threat, nationalistic feelings, and integrative ori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3), 352-362. doi:10.1080/00207594.2012.661060
- McKown, C. (2005). Applying ecological theory to advance the science and practice of school-based prejudice reduction interven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40(3), 177-189. doi:10.1207/s15326985ep4003_4
- Munroe, A., & Pearson, C. (2006).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819-834. doi:10.1177/0013164405285542
- Nesdale, D. (2004). Social identity processes and children's ethnic prejudice. In

- M. Bennett, & F. Sani (Eds.),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lf* (pp. 219-245). New York: Psychology Press. doi:10.4324/9780203391099_chapter_8
- Nesdale, D., & Flesser, D. (2001). Social identity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group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2*(2), 506-517. doi:10.1111/1467-8624.00293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doi:10.1037/0022-3514.90.5.751
- Piumatti, G., & Mosso, C. (2017).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endorsement of aggressive behaviors and thoughts with prejudice relevant correlates among adolescent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3*(1), 47-59. doi:10.5964/ejop.v13i1.1223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doi:10.1037//0022-3514.67.4.741
- Raabe, T., & Beelmann, A. (2011). Development of ethnic, racial, and national prejudic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ultinational meta-analysis of ag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82*(6), 1715-1737. doi:10.1111/j.1467-8624.2011.01668.x
- Schwarzenthal, M., Juang, L. P., Schachner, M. K., van de Vijver, F. J., & Handrick, A. (2017). From tolerance to understanding: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 multiethnic contexts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7*(5), 388-399. doi:10.1002/casp.2317
- Shin, I. S. (2009). *Same author and same data dependence in meta-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Florida). Retrieved from <https://diginole.lib.fsu.edu/islandora/object/fsu%3A168453/datastream/PDF/view>
- Stasiuk, K., & Bilewicz, M. (2013). Extending contact across generations:

- Comparison of direct and ancestral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current attitudes towar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6), 481-491. doi:10.1002/casp.2147
- Stupar, S., van de Vijver, F. J., Te Lindert, A., & Fontaine, J. R. (2014). Multicultural attitude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perceived ethnic outgroup distance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24-35. doi:10.1016/j.ijintrel.2013.05.002
- Tseng, V., & Yoshikawa, H. (2008). Reconceptualizing acculturation: Ecological processes, historical contexts, and power inequ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3-4), 355-358. doi:10.1007/s10464-008-9211-y
- Tukachinsky, R., Mastro, D., & Yarchi, M. (2015). Documenting portrayals of race/ethnicity on primetime television over a 20-year span and their association with national-level racial/ethnic attitudes. *Journal of Social Issues*, 71(1), 17-38. doi:10.1111/josi.12094
- UN(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17 Revision. (United Nations database, POP/DB/MIG/STOCK/Rev.2017). doi:10.18356/5b2b68ec-en
- van Geel, M., & Vedder, P. (2011). Multicultural attitudes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ethnic diversity in the classroom.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4), 549-558. doi:10.1177/1368430210379007
- van Zalk, M. H. W., & Kerr, M. (201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rejudice and tolerance toward immigrants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0), 1658-1671. doi:10.1007/s10964-014-0164-1
- van Zalk, M. H. W., Kerr, M., van Zalk, N., & Stattin, H. (2013). Xenophobia and tolerance toward immigrants in adolescence: Cross-influence processes within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4), 627-639. doi:10.1007/s10802-012-9694-8
- Vanman, E. J. (2016). The role of empathy in intergroup rela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1, 59-63. doi:10.1016/j.copsy.2016.06.007

Vezzali, L., Capozza, D., Stathi, S., & Giovannini, D. (2012). Increasing outgroup trust, reducing inhumanization, and enhancing future contact intentions via imagined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437-440. doi:10.1016/j.jesp.2011.09.008

ABSTRACT

A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ulticultural attitud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eon, Ranyeong* · Kim, Heehwa*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ttitudes and related variabl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ccordance with ecological approaches. After categorizing the variables into the categories of personal, micro system, and exo systems, based on the Ecological approach, this study calculated the effect size of each variable. This study analyzed 105 studies published in both Korea and abroad. There were a total of 56 variables included in personal, microsystem and exo system variables, and 732 effect sizes. Among the personal variables, 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empathy showed a relatively larger effect size than the other variables. Among the micro system variables, a multicultural attitude amongst significant others, multicultural education showed a large effect siz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media was shown to have a relatively larger effect size, compared to others among the exo system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ables related to a multicultural attitu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can in turn be used as a standard for future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to enhance multicultural attitudes.

Key Words: children, adolescents, multicultural attitude, meta-analysis

투고일: 2019. 5. 30, 심사일: 2019. 8. 2, 심사완료일: 2019. 8. 12

* Punsan National University